

코스피	2481.67	↑ (+27.74)	코스닥	719.92	↑ (+16.12)
금리	2.584	↑ (+0.012)	환율	1460.00	↓ (-7.20)



샘 올트먼 오픈AI CEO(왼쪽)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오전 10시23분께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4층에서 미팅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 글로벌 AI 거물 집결 삼성·SK와 연쇄회동

### 샘 올트먼·손정의 訪韓

오픈AI, SK와 AI 기술 협력 논의 카카오와 첫 전략적 제휴 발표도 이재용-올트먼-손정의 3자 회동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참여 기대

오픈AI의 샘 올트먼(CEO)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적인 AI 기술 및 투자 거물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으면서, 그간 정체된 것으로 지적되던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픈AI의 첫 공식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났다. 그의 방한 일정은 직전까지 극비리에 부쳐졌다.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날 오전 올트먼 CEO는 첫 번째 일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AI 기술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동석했다.

이후 그는 오픈AI 개발자회의 '빌더랩(Builder Lab)'과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동을 가졌다.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올트먼 CEO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양사의 전략적 제휴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 이는

오픈AI가 국내에서 맺은 첫 전략적 제휴로, 두 기업은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과 공동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챗GPT API를 활용한 카카오톡, '카나나' 등 카카오 서비스와의 연동 방안이 논의 중이다. 오후에 열린 올트먼 CEO와 이재용 회장, 손정의 회장의 3자 회동은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회장의 첫 공식 행보이기도 했다. 손정의 회장은 '한·미·일 AI 동맹'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최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삼성그룹과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란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합작벤처 스타게이트를 통해 4년간 최대 5000억달러(약 730조원)를 투자하는 AI 관련 사업이다. 미국 전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며, 반도체 설계자 산 기업인 Arm(암)과 엔비디아도 참여해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센터에 자체 설계 반도체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3자 회동에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사로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트먼 CEO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진 데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적 AI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친인척 동원 부당대출... 우리금융 등 적발

### 금감원, 지주·은행 주요검사 국민·농협, 직원-브로커와 공모 일부 대출에선 금품·향응 정황도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사고 금액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의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관련기사 3면>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이 지속적으로 금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대출 규모는 우

리은행이 2334억원(101건)으로 가장 컸으며, KB국민은행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 649억원(90건)인 순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영업점 부당대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은행 직원이 브로커 등과 공모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을 받은 정황도 밝혀졌다.

금감원 조사로 적발된 것 외에 금융기관 신고로 파악된 금융사고도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1~9월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는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90건, 1210억원) 대비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사 결과는 금융권 내부통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지주사 중

심의 경영이 지속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는 지주와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도 진행 중이다. 평가 결과가 우리금융지주가 주주인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우리금융의 M&A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종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을 제재 절차와 '투트랙'으로 분리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의 임기가 6월 초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임기 중 제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서울 첫 한파 경보 서울에 올해 첫 한파경보가 발효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강변에 얼음이 얼어 있다. /뉴시스

## 여야정 4자 참여 국정협의회 내주 초 개최

###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반도체법·추경 편성 합의 기대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다음주 초에 개최한다고 4일 예고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자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

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오섭 국회의원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회는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결정한 이후 한달만에 열렸다. 그동안 여야가 현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다음 주 월·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권영세 비대위원

장, 이재명 대표까지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서 다음 주 중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이 반도체 특별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국정협의회 논의 대상에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다 포함되는데, 특정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메트로 한줄뉴스



- ▲조국혁신당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 투표... 7공화국 준비" /사진 뉴시스
- ▲최재성 "민주당內, 국힘보다 더 입틀막... 이재명, 총구 밖 향하라고만"

- ▲국정원 "파병 북한군, 1월 중순부터 전투 동향 없어"
- ▲"요양시설 임차, 비영리법인만 허용해야... 지역 제한 검토도 필요"

- ▲한병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에 "정의 승리한다는 것 증명해"
- ▲"尹 복귀 안해도 보수정권 재창출... 이재명, 정역1년 예상" 전원책 변호사